

건축가를 만들어내는 교육과정이 엉거주춤하다. 학교가 만들어지면 우선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건축과이고 그래서 비운뒤 죽순 돌아나듯이 전국에 산재한 건축과에서 건축에 뜻을 두고 쏟아져 나오는 지방생이 아마도 일년에 지어지는 집의 숫자보다도 많으면 많지 적지는 않을 것이다.

## 우리의 오늘

매년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되고 있는 건축사면허시험에 각 사무소마다 응시하는 수가 많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과정이 과연 제대로의 계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한번 정리를 해보려는 마음이 들었고 그런 뜻에서 우리의 오늘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오늘을 정확히 정리해 보는 것이 어제를 돌이켜 보거나 내일을 예측하는 데에 손쉬운 방법이기도 하거니와 전문적인 분석이나 자료를 동원하지 않고서도 개괄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건축은 하나의 행위임에 틀림이 없고 행위라는 것이 그것을 하게하는 주체가 있어서 그로 인한 결과라고 한다면 건축에 관한한 그 행위의 주체는 당연히 건축가이어야 한다.

이렇게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이라는 행위들 중에 건축가가 실제의 주체가 되어 만들어지고 있는 곳이 몇곳이나 될런지 궁금해진다.

이런 “궁금함”이 바로 오늘의 건축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수식어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지나친 표현이 될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주위를 살펴본다면 크게 무리한 것이 아닌듯도 하다.

우선 건축가를 만들어내는 교육과정이 엉거주춤하다. 학교가 만들어지면 우선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건축과이고 그래서 비운뒤 죽순 돌아나듯이 전국에 산재한 건축과에서 건축에 뜻을 두고 쏟아져 나오는 지방생이 아마도 일년에 지어지는 집의 숫자보다도 많으면 많지 적지는 않을 것이다. 스포츠 용어에서처럼 저변확대가 이루어져 우수한 능력을 발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표선수를 선발하거나 취미의 하나로 하는 것이 아닌 다음에야 그 많은 건축전공학생이 어디서 무엇을 하게 될지는 본인 스스로도 궁금해진다.

또한 그 학생들을 키우는 쪽도 문제가 단순치 않다. 우선 건축공학과, 건축미술과, 건축학과 하는 과의 명칭이 다양하듯이 그 과가 속한 대학마저 공과대학이기도 하고, 미술대학이기도 하며, 조형대학이기도 하다. 그렇다고해서 공학쪽 출신은 엔지니어, 미술쪽 출신은 디자이너가 되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건축가들의 대부분이 공학계열의 출신이고 오히려 미대계열의 출신에서 구조역학이나 설비등을 전공하는 분들이 꽤나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글을 쓰는 본인도 당초에는 수학 대신 뱃상을 필수로 하는 건축미술과로 입학했다가 제대후 복학해보니 건축공학과로 과의 성격이 바뀌어 공학사의 졸업장을 받았다. 딸아이의 산수 숙제에 찢찢매는 공학사라니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그것이 궁금하다.

어찌됐든 건축과는 만들어지고 만들어진만큼 학생들은 모이게 된다. 그렇게 되면 교수가 그만큼 필요하게 되고 필요한만큼의 교수를 충원하다보면 공대출신교수가 미대쪽으로 가게도 되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기게 된다. 물론 건축공학과나 건축미술과의 커리큘럼이 별차이가 없으니까 애써 전공의 구애를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문제는 집짓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교수들에게 설계에서 부터 집이 완성되기 까지의 경험을 공식적으로는 못하도록 되어 있는 애매한 규정에 있다. 교수의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 규정이 명문화된 것을 아직 보지 못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인식되고 있다. 다행히 실무에 종사하다가 학교로 옮긴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의 입장이 확실해 지겠으나 학부에서 대학원을 거쳐, 바로 교단에 서게되는 경우도 있을터인데 이런 경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또한 궁금해진다. 물론 실무와 교육은 그 전문성이나 기능적인 면에서 전혀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나 건축은

金 仁 喆  
(주) 종합건축사사무소 엄·이건축

스포츠 용어에서처럼 저변확대가 이루어져 우수한 능력을 발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표 선수를 선발하거나 취미의 하나로 하는 것이 아닌다음에야 그 많은 건축전공 학생이 어디서 무엇을 하게 될지는 본인 스스로도 궁금해진다.

경험의 과학이라고 까지 말해지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때, 어딘가 석연치 않는 점이 있음을 그냥 지나칠 수 없기 때문이다. 의과대학의 교수가 개업은 할 수 없으며 그들의 이론을 실제로 대학병원의 임상을 통해서 완성시키고 있는 것은 건축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건축 교육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고 그것이 일관성있게 진행되어야만 나름대로의 성격을 갖춘 건축과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속에서 최소한의 방향설정을 갖춘 건축지망생이 배출될 것이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는 실제의 사회에서 받아드려 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해서 건축에 참여하게된 많은 지망생들이 각양각색의 과정을 거치면서 나름대로의 길을 개척하며 꿈을 키우다가 다시 한번 모이게 되는 계기가 건축사의 면허시험이 된다.

면허제도라는 것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할 의도는 없지만 그간에 있었던 면허 문제에 의한 일을 생각해보면 건축행위에 대한 사회인식의 모순을 느끼게 된다. 다시 말하면 건축사와 건축가에 대한 개념의 혼란이다.

현재 건축인이 관련되는 공식적인 사회단체는, 건축사협회, 건축가협회, 건축학회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앞의 두 단체가 된다. 건축사협회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면허소지자로서 사무소를 개업하고 있는 건축사의 그것이고, 건축가협회는 특정한 면허의 유무에 관계없이 자체의 이사회를 통해 회원이 구성된다.

건축행위를 함에 있어서 하나는 실무와 법적책임에 근거를 두고, 또 하나는 창작활동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는 것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겠으나, 창작과 실재를 어떻게해서 구분지을 수 있는지가 궁금함의 포인트이다.

건축사의 모든 것에 대하여는 건축사

법에 의하여 정리가 되어 있으므로 건축행위의 모든것은 건축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한다면, 건축가협회의 회원중에 명시된 것처럼 “건축에 관한 모든 창작활동의 자격을 부여함”이라는 문구의 해석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창작활동이라는 어휘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자격이라는 용어의 근거는 무엇에 의한 것인지 애매해진다.

사협회 회원이면서 가협회 회원이기도 한 경우는 천만다행한 일이겠으나 어느 한쪽에만 소속된 경우 소속되지 않은 쪽에 대해서는 항상 죄를 짓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더구나 집을 지어보려는 아마추어가 스스로의 생각을 스케치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된다. 결국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하나의 건축물에 대해 창작자가 따로 있고 법적책임자가 따로 있었다는데에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건축사법을 위배한 것이 되고 후자는 면허대여라는 명목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귀결이 되었다.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으나 이것은 문제화되어 표면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왈가왈부 가 되었던 것이고 사실을 살펴보면 우리의 주위에 이러한 경우는 셀수도 없이 많은 것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건축사라 하더라도 면허를 취득해서 개업하기 이전까지의 작품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따져 볼 필요도 없겠지만, 건축사협회가 권익보호라는 명분으로 단속을 한다면 아마도 상당히 복잡하게 열키게 되고 말 것이다.

여하튼 음악가, 화가, 조각가 등등의 창작 행위에 면허와 자격이 필요하다는 경우라면 건축가에게도 당연히 그것이 필요하겠지만, 그게 그렇지 않은 것은 설명하기가 새삼스럽고,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건축을 맡기자고 하자니 더욱 큰 사회적 혼란이 될 것이고, 이렇게 애매하

고 어정쩡한 입장이 어떻게해서 명쾌히 정리될 수 있을 것인지도 궁금한 것의 하나이다.

글이 상당히 옆으로 빗나가게 되었으나 면허에 관한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얻고 싶다.

학교에서 건축을 전공한 뒤 일정기간의 실무경력을 갖추어야 테스트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오년, 칠년의 실무경력을 토대로 해서 치루게 되는 테스트란 것이 학교의 졸업시험과 비슷한 수준인 것도 이상하지만, 결과적인 합격선의 설정이 분명히 자격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의 처리를 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건축사의 수준을 높이고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나 수급균형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모순이다.

건축사의 수준을 높인다는 것은 일견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건축사의 수준이 문제가 된 것은 이 제도의 역사가 짧음 때문에 일어난 기존 건축사의 수준이 문제였지 새로히 입문하는 대상이 아닌 것이므로 대상의 선정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수급균형의 항목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여지는 상황에서 그리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짙고 패기있는 건축사가 전체적인 구성의 중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앞의 목적에도 부합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면허를 취득했다고 해서 모두가 개업이 가능한 현실도 아니고 더우기 건축작업의 프로세스를 이해한다면 건축사 면허의 남발로 인한 혼란은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취득의 조건이 까다로움으로 인해 시험이 있기 몇 개월전 부터 실제업무에서 손을 놓아야 하는 한창 일할 시기의 대상자들을 풀어주는 것이 보다좋은 수준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나 생각이 된다.